

다면 페르소나 검사를 통한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

박 순 환[†]

대남병원

본 연구에서는 성격검사의 일종인 다면 페르소나 검사를 통하여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우울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나누어 페르소나 점수를 비교하였고, 연구2에서는 우울증 환자와 일반인 간에 페르소나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우울집단과 우울증 집단 모두에서 자기비판적인 페르소나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의 점수가 더 높았고, 반면에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의 점수는 더 낮았다. 하위요인을 보았을 때, 우울한 사람들이 상처받기 쉬운 민감성, 실수에 대한 혐오, 강함에의 추구, 자기방어적 체면, 일관결지향성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활발성은 더 낮았다. 대학생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자기비판적인 성향이 우울 증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이었다.

주요어 : 페르소나, 우울, 다면 페르소나, 주요 페르소나, 성격특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 순 환 / 대남병원 임상심리실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64 번지
FAX : 051-316-6857 / E-mail : pswhoan@hanmail.net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우울해지지는 않는다(Coyne & Downey, 1991). 이러한 점이 우울에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취약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우울 취약요인으로서 성격특성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는데, 완벽주의와 자기비판적인 성향, 수치심 경향성 및 자기애적 성향과 같은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특히 완벽주의와 자기비판적인 성향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주로 한두가지의 성격특성과 그 하위요인들이 우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다양한 여러 성격특성들이 우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성격특성들을 함께 보면서, 이런 성격특성들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할 때, 우울과 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순환(2005)이 개발한 다면 페르소나¹⁾검사를 통하여 우울한 사람

들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검사는 Stone과 Stone(1989)의 페르소나에 대한 분류와 정의를 근거로 개발되었다. 페르소나에 대해 Jung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외적인격으로 정의하였는데(이부영, 1998), Stone과 Stone(1989)은 내면대화 요법(Voice Dialogue)²⁾을 통하여 각각의 페르소나들이 그 나름의 역사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에너지 패턴과 신념,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내에 수많은 페르소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미국의 성인 사회에서 개인의 상황 및 자신에 대한 지각,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페르소나로서 9가지의 주요 페르소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들은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통제(the Protector-Controller) 페르소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도록 밀어부치는 성취지향 페르소나(the Pusher), 완벽성을 목표로 하면서 추구하게 하는 완벽지향 페르소나(the Perfectionist),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비판적인 페르소나(the Critic),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 여기는 배려지향 페르소나(the Pleaser), 강함과 주도성을 중시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the Power), 감수성과 연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

1)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그리스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지칭하는데(김성운, 2004), 이 용어로부터 성격, 인격(personality), 사람(person)이란 용어가 파생되었다. Jung은 페르소나를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외적 인격(external personality)으로 정의하지만, 심리학 문헌에서 이 용어는 두가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첫 번째는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이자 행동양식이라는 의미이고(심상영, 2001; 이기춘, 김성민, 1984; 이부영, 1998), 두 번째는 가면 혹은 탈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아(self), 혹은 인격(personality)이라는 의미이다(심상영, 2001; 이부영, 1998; 이태동, 1982; Borgart, 1994; Stone & Stone, 1989). 두 번째 의미

에서 볼 때, 요구되는 규범이나 행동양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페르소나)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지 페르소나 그 자체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 페르소나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

2) 내면대화 요법: Stone과 Stone(1989)이 1970년대 초에 창시한 심리요법으로서 개인내에 있는 각 페르소나를 고유한 한 사람의 인격체와 같이 취급하면서, 페르소나와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페르소나들을 인식하고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심리요법이다.

감한 어린이 페르소나(the Vulnerable Child), 어린아이처럼 잘놀 줄 아는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the Playful Child) 및 마술적 어린이 페르소나(the Magical Child) 등이다. 박순환(2005)은 인위적 개념일 수 있는 마술적 어린이 페르소나를 제외하고, 유교문화권인 한국사회에서 체면지향 행동이 보편적인 심리사회적인 행동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김재은, 1987; 윤태림, 1986; 이규태, 1987; 최상진, 1992, 2001), 체면과 위신의 유지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닌 체면 페르소나(the Facer)를 주요 페르소나에 포함시켜 9개의 페르소나로 페르소나 검사를 개발하였다. Stone과 Stone(1989)이 보편적인 것으로 분류한 주요 페르소나는 의사, 간호사, 아버지 페르소나와 같이 역할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성취지향성, 완벽성, 권력지향성 등과 같은 성향, 혹은 특성과 관련된 분류이며, 이러한 성향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순환(2005)이 개발한 페르소나 검사는 일종의 성격 검사로서 개인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며, 개인 성격내에서 과발달된 측면과 미발달된 측면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 검사로 우울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 측면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격적인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 두 가지 성격과 우울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였으며, 특히 완벽주의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완벽주의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는 초기 연구들(Burns, 1980; Hamachek, 1978; Hollender, 1965)이나 내면대화 요법을 통한 경험적 연구(Stone & Stone, 1989, 2003)에서는 완벽주의가 과도할 때 우울해지기 쉽다는 점이 지적되었

다. 완벽주의의 초기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가 개발된 후에는 완벽주의의 다양한 차원들을 구분한 연구들이 행해졌으며, 최근에는 이들 차원들이 모두 완벽주의의 적응적 차원과 부적응적 차원으로 수렴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완벽주의는 완벽에 대한 추구 및 실수와 결점에 대한 회피로 특징지어진다. 여기에서 완벽에 대한 추구는 대체로 우울 증상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자존감,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 적응적 차원이었다(박현주, 1999; Powers, Zuroff, & Topciu, 2004). 반면에, 실수와 결점에 대한 회피는 일관되게 우울과는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자존감 등과는 부적적인 관련성을 보인 부적응 차원이었다(김근홍, 1998; Anthony, Purdon, Huta, & Swinson, 1998; Enns & Cox, 1999).

자기비판적인 성향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신분석과 인지이론 및 내면대화 요법 등에서 자기비판적인 성향이 우울의 취약요인이라는 점이 일관되게 지적되었다. Beck(1976)의 인지이론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 말하자면 자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울증에 있어서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하였고, Beck의 주장과 일관되게 우울한 사람이나 우울증 환자들에 있어서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Kranta & Hammen, 1988). Stone과 Stone(1989, 1993)도 내면대화 요법을 통한 관찰을 근거로 비판 페르소나(the Critic)가 과도할 때 열등감, 위축감, 수치심, 우울감 및 자존감 등에서의 손상이 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열등감이나 위축감, 수치심, 자존감, 우울감 등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인데, 비판 페르소나가 과도하면 할수록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더 심하게 경험하고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Blatt(1974, 1998)도 기존의 우울증에 대한 다양한 정신분석적 견해들을 종합하면서 우울증을 의존적 우울증(analitic depression)과 함입적 우울증(introjected depression)으로 구분하였고, 버림받고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한 만성적인 두려움을 갖는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의존적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자기비판적인 사람들이 무가치감, 열등감, 실패감, 죄책감을 특징으로 하는 함입적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Blatt가 개발한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 즉 자기비판적인 성향 및 의존성은 우울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특히 자기비판적인 성향은 우울과 밀접하게 매우 높은 상관(예: $r=.65$)을 보였고, 의존 성향은 중등도의 상관(예: $r=.35$)을 보였다(Bartelstone & Trull, 1995; 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 & Zuroff, 1982; Blatt & Zuroff, 1992).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특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들은 단지 한 두가지 성격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다. Jung은 성격이 일방향적으로 발달할 때, 그 대극되는 성질의 것이 무의식에 미발달 상태로 묻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식과 무의식간의 긴장 관계가 심해지고, 이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어느 시점에서 무의식의 에너지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그 결과로 신경증, 우울증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규동, 1982; 이부영, 1998). 특히 Jung은 신경증의 원인은 개

인의 생활사나 과거의 심리적 상처(trauma)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식의 일방성이 그 중요 원인이 되며(이부영, 1998), 이로 인한 정신의 해리임을 지적하고 있다(한국융연구원, 2001). Jung은 의식의 일방성이 나타나는 영역을 외부사회에의 순응을 위한 집단정신에의 과도한 동일시, 남성적 혹은 여성적 페르소나에의 과도한 동일시 및 심리학적 유형론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이부영, 1998). Stone과 Stone(1989)도 에너지 대극론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있어 어떤 페르소나가 과도하게 발달하면, 그에 대극되는 성질의 에너지가 무의식속에 미발달되거나 억압된 상태로 묻혀 있게 되어 심리생리적인 문제 혹은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Stone과 Stone이 말하는 페르소나는 성격특성과 관련되는 개념인 바, 이는 어떤 성격이 과발달되면 그에 따라 여러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이는 완벽주의, 자기비판적 성향, 의존성 외의 다른 성격특성들도 우울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면 페르소나 검사는 검사개발시에 각각의 페르소나의 특성에 충실하게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으며, 각 페르소나 척도내에 하위요인들을 분류함으로써 성격특성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다.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하여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즉 핵심적인 성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 우울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

방 법

연구대상

2004년 9월과 2005년 3월에 부산에 소재한 3개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거나 생활지도 및 교육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402명에게 다면 페르소나 검사와 BDI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자료 36부를 제외하고, 366명(남 184명, 여 18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BDI 점수가 16점 이상을 우울상 집단으로, 9점 이하를 우울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Shaw, Vallis & McCabe, 1985). 우울 상 집단에는 54명이 속했고, 평균 나이는 21.6세(표준편차 2.55세)였고, 우울하 집단에는 224명이 속했고, 평균 나이는 21.95세(표준편차 2.61세)였다.

측정도구

다면 페르소나 검사

이 검사는 박순환(2005)이 개발한 것으로 전체 문항은 171문항으로 구성되고, 9개의 페르소나 척도가 있고, 그 척도들은 각각 1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4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각 페르소나 척도는 비판 페르소나 척도만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고, 다른 페르소나 척도는 2-3개의 요인으로 되어 있다. 이 검사제작시에 내용타

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검사제작후에는 각 페르소나 척도의 요인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개발할 때와는 다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 검증을 하였다. 또 불안, 자존감, 분노감, 소외감 등과의 상관 연구를 통하여 구성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안정성과 구성타당도가 양호하였다(박순환, 2005). 신뢰도 검증 결과, 각 페르소나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89에 속하고,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65~.84에 걸쳐 있다. 페르소나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86에 속하고, 하위요인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9~.86에 걸쳐 있다.

Beck 우울 척도(BDI)

이 척도는 Beck, Ward, Mandelson, Mock 및 Erbaugh(1961)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였으며, 한국판 우울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8이다.

결과 및 논의

우울상, 하 집단간의 페르소나 점수 비교

표 1에는 우울상 집단과 하집단의 페르소나와 하위요인들의 점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울상 집단은 하집단에 비하여 비판 및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보호통제, 체면 페르소나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의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요인들을 보았을 때 우울상 집단은 하집단에 비하여 상처민감성, 일원결

표 1. 우울상하 집단간의 페르소나와 하위요인들의 점수 비교

	우울하집단 (n=224) 평균(표준편차)	우울상집단(n=54) 평균(표준편차)	t 값
보호통제 페르소나	27.47(7.84)	30.65(8.42)	-2.64**
감정표현 통제	9.28(3.81)	10.04(4.95)	-1.23
비난회피	12.53(3.63)	13.63(3.97)	-1.96
모험회피	5.42(3.08)	6.89(2.97)	-3.16**
체면페르소나	25.91(7.82)	28.87(8.46)	-2.46**
명예/위신 중시	14.36(4.35)	16.00(4.57)	-2.46*
타인체면 중시	5.28(2.51)	5.43(2.61)	-0.39
방어적 체면	6.29(3.11)	7.46(3.56)	-2.42*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27.92(7.90)	34.06(9.63)	-4.90***
상처 민감성	12.69(4.82)	17.72(5.65)	-6.65***
개방 민감성	15.22(4.42)	16.33(5.43)	-1.58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30.01(8.55)	26.37(9.63)	2.74**
활발성	21.50(6.24)	17.04(6.40)	4.69***
즉흥성	8.51(3.70)	9.33(4.30)	-1.39
완벽지향 페르소나	27.57(8.81)	29.28(9.89)	-1.24
완벽추구성	18.66(6.78)	18.33(6.83)	0.32
실수에 대한 혐오	8.97(5.58)	10.89(4.73)	-2.33*
비판페르소나	19.54(8.37)	29.33(9.57)	-7.50***
성취지향 페르소나	27.33(9.10)	28.77(9.16)	-1.04
목표지향성	6.94(3.14)	6.19(2.75)	1.62
성공 열망	13.05(5.00)	13.43(5.68)	-0.47
일완결지향성	7.41(3.55)	9.22(3.17)	-3.44***
배려페르소나	28.36(7.92)	30.61(9.13)	-1.82
공감 및 위로	13.16(3.82)	13.61(4.35)	-0.76
호감/타인만족추구	5.64(2.72)	7.04(2.76)	-3.38***
배려에의 중요성	9.33(3.37)	9.98(3.65)	-1.25
권력지향 페르소나	25.09(9.10)	24.35(9.07)	0.54
통솔력/강인성	12.12(5.16)	9.65(4.53)	3.23***
강함에의 추구	12.98(5.21)	14.70(5.72)	-2.14*

* $p < .05$, ** $p < .01$, *** $p < .001$.

지향성, 호감/타인만족 추구, 모험회피, 명예/위신 중시, 방어적 체면, 실수에 대한 혐오 강함의 추구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활발성과 통솔력/강인성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다.

우울과 페르소나와의 상관분석

우울과 페르소나와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은 비판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순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보호통제, 체면, 배려, 완벽지향 페르소나와도 높지는 않지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유희

적 어린이 페르소나와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울이 깊어질수록 자기비판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민감하게 상처받기가 쉬워지며, 유희적인 면은 더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울과 하위요인과의 상관분석

비판 페르소나를 제외한 다른 페르소나들의 하위요인들과 우울과의 상관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은 상처받기 쉬운 민감성 요인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r=.39$), 실수에 대한 혐오, 일완결지향성, 호감/타

표 2. 우울과 페르소나와의 상관관계($n=366$)

	보호통제 페르소나	체면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완벽지향 페르소나	비판 페르소나	성취지향 페르소나	배려 페르소나	권력지향 페르소나
우울	.16 **	.12 *	.30 ***	-.17 ***	.11 *	.44 ***	.10	.12 *	.01

* $p<.05$, ** $p<.01$, *** $p<.001$.

표 3. 우울과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n=366$)

보호통제 페르소나			체면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1	2	3	4	5	6	7	8	9	10
우울	.09	.09	.19 **	.11 *	.01	.15 **	.39 ***	.10	-.28 ***
완벽지향 페르소나		성취지향 페르소나			배려지향 페르소나			권력지향 페르소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우울	-.02	.25 ***	.08	-.10	.25 ***	.05	.21 ***	.06	-.19 ***

* $p<.05$, ** $p<.01$, *** $p<.001$.

1. 감정표현 통제, 2. 비난회피, 3. 모험회피, 4. 명예/위신 중시, 5. 타인체면 중시, 6. 방어적 체면 7. 상처받기 쉬운 민감성, 8. 개방적 민감성, 9. 활발성, 10. 즉흥성 11. 완벽추구성 12. 실수에 대한 혐오 13. 성공열망 14. 목표지향성, 15. 일완결지향성, 16. 공감/위로, 17. 호감/타인만족 추구, 18. 배려중요성 19. 통솔력 강인성 20. 강함추구

표. 4. 우울 점수에 대한 페르소나 척도 점수들의 단계적 회귀분석표

종속변인	예언변인	R	R ²	R ² 증가량	F변화량	Beta(β)
우울	비판 페르소나	.442	.195	.195	97.944 ***	.394 ***
	유회적 어린이 페르소나	.474	.225	.030	14.067 ***	-.263 ***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492	.242	.019	7.930 **	.219 **
	보호통제 페르소나	.508	.258	.017	8.014 **	-.157 **

* $p < .05$, ** $p < .01$, *** $p < .001$.

인만족 추구, 모험회피, 강함애의 추구, 방어적 체면 순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 활발성, 통솔력/강인성 요인과는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다.

나는 결과가 우울증 환자집단에서도 반복하여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페르소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상인들과 비교하였다.

우울 점수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각각의 페르소나들이 우울 증상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각의 페르소나 점수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비판 페르소나가 가장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총변량의 19.5%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유회적 어린이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보호통제 페르소나가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이들 모든 변인들이 총변량의 25.8%를 설명하였다. 예언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비교할 때, 비판 페르소나, 유회적 어린이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보호통제 페르소나 순으로 상대적인 중요도가 더 높았다.

연구 2. 우울증 환자들의 성격 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우울 집단에서 나타

방 법

연구대상

우울증 환자 42명(남21, 여 21)과 정상인 44명(남녀 각각 2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우울증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우울증으로 진단이 내려진 경우이며, 2군데 대학병원과 4군데 정신과 의원에서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다. 정상인은 병원의 간호사, 보호사 및 보호자들인데, 일반인들에 있어서 BDI 점수가 중등도의 우울 상태를 반영하는 16점 이상일 경우(Shaw, Vallis & McCabe, 1985)에는 정상인 집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상집단의 평균 나이는 40.46세(표준편차 9.09세)이고, 우울증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39.38세(표준편차 10.62)이다. 정상집단의 평균 학력은 13.32년(표준편차 1.84년)이고 우울증 환자들의 평균 학력은 13.17년(표준편차 1.90년)으로서 두 집단간에 나이와 학력에서 차이가 나

표 5. 정상집단 우울증 집단의 페르소나 및 하위요인의 점수비교

	정상집단(n=44)	우울증 집단 (n=42)	t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보호통제 페르소나	27.91(7.99)	30.93(8.45)	-1.70
감정표현 통제	9.73(3.02)	10.02(3.71)	-0.41
비난회피	11.55(3.96)	12.36(4.47)	-0.89
모험회피	6.64(3.21)	8.55(3.10)	-2.80**
체면 페르소나	24.45(7.48)	26.48(8.24)	-1.19
명예/위신 중시	14.55(4.26)	14.05(4.97)	-0.50
타인체면 중시	5.20(2.35)	4.98(2.17)	0.47
방어적 체면	4.70(2.61)	6.45(3.29)	-2.73**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21.43(6.51)	27.07(10.13)	-3.09**
상처 민감성	9.09(3.90)	13.93(6.47)	-4.22***
개방 민감성	12.34(3.68)	13.14(4.77)	-0.88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23.34(8.13)	17.60(8.10)	3.28**
활발성	17.73(5.83)	11.31(5.41)	5.28***
즉흥성	5.61(3.51)	6.29(4.06)	-0.82
완벽지향 페르소나	26.73(7.78)	30.43(10.73)	-1.83
완벽추구성	19.55(5.67)	19.07(6.74)	0.35
실수에 대한 혐오	7.18(3.92)	11.36(5.28)	-4.15***
비판 페르소나	15.95(7.38)	27.02(10.98)	-5.51***
성취지향 페르소나	22.80(8.26)	26.50(9.64)	-1.97
목표지향성	5.73(2.31)	5.62(3.00)	0.19
성공 열망	10.36(4.86)	11.33(5.15)	-0.90
일완결 지향성	6.70(2.80)	9.64(3.80)	-4.10***
배려 페르소나	28.30(8.96)	25.81(9.03)	1.28
공감 및 위로	12.75(4.07)	11.57(4.40)	1.29
호감/타인만족 추구	5.09(3.26)	5.07(3.07)	0.03
배려에의 중요성	10.45(3.00)	9.17(3.25)	1.91
권력지향 페르소나	22.27(8.60)	23.31(9.00)	-0.55
통솔력/강인성	10.18(4.76)	9.12(5.33)	0.97
강함에의 추구	12.09(4.65)	14.19(5.03)	-2.01*

* $p < .05$, ** $p < .01$, *** $p < .001$.

지 않았다.

측정도구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다면 페르소나 검사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우울증 집단과 정상집단의 페르소나 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 차이비교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증 집단은 정상 집단에 비하여 비판 페르소나와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유회적 어린이 페르소나의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에도 보호통제, 성취지향, 완벽지향 페르소나 수준들이 다소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t(84)=-1.70, p=.09$; $t(84)=-1.97, p=.053$; $t(84)=-1.83, p=.07$. 하위요인들을 비교하였을 때, 우울증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하여 상처민감성, 실수에 대한 혐오, 일완결 지향성, 모험회피, 방어적 체면, 강함애의 추구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활발성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하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경향성 및 상처받기 쉬운 민감성, 실수에 대한 혐오, 일완결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높으며, 활발성과 같은 유회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면 페르소나 검사를 통하여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우울 집단과 비우울집단을 비교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우울증 환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을 비교하였다. 대학생 우울집단과 우울증 환자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겠다.

첫째,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비판 페르소나 점수가 현저하게 높았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비판적인 성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Stone과 Stone(1989, 1993)의 관찰 및 Beck(1976)의 인지이론,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 유형으로 자기비판형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 Blatt(1996)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판 페르소나가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비판적인 성향이 우울 증상 발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성격 특징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상처받기 쉬운 민감성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개방적 민감성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수성과 관련된 개방적 민감성은 우울과 관련이 없지만, 연약성 및 의존성과 관련된 상처받기 쉬운 민감성은 우울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으로 “의존형”에 대하여 언급한 Blatt(1996)의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유회적 어린이 페르소나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활발성 수준은 상당히 낮았던

반면에, 즉흥성 요인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우울한 사람들이 활동적인 경향성은 낮지만, 즉흥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넷째,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간에 완벽지향 페르소나 및 그 하위요인인 완벽추구성 요인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수에 대한 혐오 요인의 수준은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완벽주의에 있어서 완벽 그 자체를 추구하는 속성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지만, 실수를 혐오하는 속성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울과 밀접하게 연관된 속성인 자살사고에 대한 연구(Adkins & Parker, 1996)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연행동을 보이는 수동적 완벽주의자들이 완벽추구적인 동기가 높은 완벽주의자들과 달리 자살사고를 많이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우울은 성취지향 페르소나와는 그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하위요인인 일완결지향성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권력지향 페르소나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었으나, 강함의 추구 요인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보호통제 페르소나와는 그 상관이 뚜렷하지 않지만, 모험회피 요인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체면 페르소나와도 그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방어적 체면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성취지향, 보호통제, 체면 및 권력지향 페르소나와의 관계는 뚜렷히 드러나지 않지만, 하위요인을 분석할 때 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남을 시사한다. 특히 우울한 사람들이 일을 완결짓고자 하는 경향, 방어적으로 자신의 체

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 약함을 거부하고 강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 및 모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성격경향들이 우울의 취약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비판 페르소나는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상대적 중요도가 다른 페르소나들에 비하여 더 높았다. 비판 페르소나,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완벽지향 페르소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선행 이론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활발성, 일완결지향성, 타인에게 만족을 주면서 호감을 얻고자 하는 경향, 방어적으로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 및 강함의 추구, 모험회피 속성 등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의 취약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활발성이 낮을수록, 반면에 일완결지향성, 타인에게 만족을 주고 호감을 얻고자 하는 경향성, 방어적 체면유지 경향성, 강함 추구 및 모험회피 성향 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해지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울증에서 유희적 어린이 페르소나, 특히 그 하위요인인 활발성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우울증의 주증상으로 의욕 및 활력의 저하를 생각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울의 결과로 활발성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의 페르소나 검사 문항은 “...하곤 했다”, “대체로 ...했다”와 같이 지속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활발성을 알아보는 문항들이 우울 정서를 측정하는 설문지(BDI)의 문항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리속성을 측정한 것이다. 이는 우울 정서가

활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한 활발성이라는 특성 자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활발성 자체가 우울을 덜 경험하게 하는, 우울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여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분석을 통하여 Coyne과 Whiffen(1995)의 Blatt의 유형분류에 대한 비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Coyne과 Whiffen은 Blatt의 우울경험질문지(DEQ)를 사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우울증의 유형분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Blatt는 자기비판형과 의존형을 독립적이고 중첩되지 않는 유형이라고 가정하면서 실제 연구에서 두가지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분석시에 배제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울경험질문지를 사용한 실제 연구들에서 자기비판 성향과 의존성이 동시에 높은 사람들이 어느 한 성향만 단독으로 높은 사람들만큼이나 많았고, 동시에 높은 사람들이 단독으로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우울한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해버

렸다는 것이다. Coyne과 Whiffen은 이러한 논거에 근거하여 자기비판 성향과 의존성이라는 두가지 성격특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특성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를 포괄하는 특성으로 신경증적인 경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 1, 2에서 우울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하여 일관되게 더 많이 갖고 있는 성격특성들, 즉 자기비판 성향(페르소나), 상처민감성, 일완결지향성, 실수에 대한 혐오, 방어적 체면, 강함추구, 모험회피, 활발성 등과 같은 성격특성들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알아보려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1의 대학생 피험자 366명의 자료를 주축요인분석과 사교회전을 통하여 추가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비판 성향, 실수혐려, 상처민감성, 방어적 체면, 강함추구, 일완결지향성, 모험회피 등이 한 요인으로 묶였고, 활발성이 다른 한 요인에 해당되었으며,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r(366) = .05$, ns. 전자의 성격특성들은 신경증적인 경향과 관련된 특성들로 생각되었다. 이는 활발성 이외의 다

표 6. 연구 1,2의 우울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성격특성들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이름	공통적 성격특성	요인 1	요인 2
신경증적 경향	실수에 대한 혐오	.85	.09
	자기비판 성향	.81	.34
	상처민감성	.74	.15
	방어적 체면	.71	.22
	강함에의 추구	.69	.36
	일 완결지향성	.65	.07
	모험회피	.47	.38
활발성	활발성	.01	.52
	설명변량	44.27	44.27
	누적변량	8.90	53.27

른 성격특성들이 신경증적 경향에 수렴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Coyne과 Whiffen(1995)의 주장, 말하자면 자기비판성향과 의존성이 독립적인 속성이 아니라 상호관련된 속성이며, 이들 특성보다 상위의 어떤 속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되는 결과로 생각되었고,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취약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들을 포괄적으로 밝혔고 우울한 사람들의 취약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로는 여러 성격특성들이 우울의 취약요인임을 확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Shahar, Blatt, Zuroff, Kupermine 및 Leadbeater (2004)는 단기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우울과 자기비판적인 성향과의 관계가 상호작용적인 관계, 즉 자기비판적인 성향이 우울에 취약하게 할뿐만 아니라 우울도 자기비판적인 성향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은 본 연구에서 우울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성격특성이 우울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도 또한 이러한 성격특성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취약 요인으로 밝혀진 자기비판 성향외의 다른 여러 성격특성이 우울취약 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페르소나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또한 이러한 성격특성들이 우울증의 회복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취약 요인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근홍 (1998).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11-222
- 김성운 (2004). 가면 쓴 사람들. 아산의 향기 1/2월호, 아산사회복지재단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박순환 (2005). 다면 페르소나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상영 (2001).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융의 분석심리학*. 서울: 콤팩출판사
- 윤태림 (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동방도서
- 이규동 (1982). *칼 융의 심리학*. 서울: 성문각.
- 이규태 (1987). *한국인, 한국병*. 도서출판 일념.
- 이기춘, 김성민 역 (1984).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원저 Clift, W. B. (1982). *Jung and Christianity-The challenge of reconciliation*).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최상진 (200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65-83.
- 한국융연구원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2001).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융 기본 저작집 1권*. 서울: 숲.
- Adkins, K. K., & Parker, W. (199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 Personality*, 64(2), 529-543.
- Antony, M. M., Purdon, C. L., Huta, V.,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1143-1154.
- Beck, A. T. (1976).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A cognitive model. In R. J. Froed & M. M. Katz(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3-20. Washington, D.C: Winston & Sons.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 Blatt, S. J. (1998). Contributions of psychoanalysis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depression.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6, 723-752.
- Blatt, S. J., Quinlan, D. M., Chevron, E. S., McDonald, C., & Zuroff, D. C. (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113-124.
- Borgart, V. (1994). Transcending the dichotomy of either "subpersonalities" or "an integrated unitary self".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4(2), 82-89.
- Burns, D. D. (1980, November).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70-76.
- Coyne, J. C., & Downey, G. (1991).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 401-425.
- Coyne, J. C., & Whiffen, V. E. (1995). Issues in personality as diathesis of depression: The case of sociotropy-dependency and autonomy-selfcriticism. *Psychological Bulletin*, 118, 358-378.
- Donaldson, D., Spirito, A., & Parnett, E. (2000). The role of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cognition in understanding the hopelessness experienced by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1(2), 99-111.
- Enns, M. W., & Cox, B. J. (1999).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sever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783-794.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449-468.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Kranta, S., & Hammen, C. L. (1988). Assessment of cognitive bias in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611-619.
- Powers, T. A., Zuroff, D. C., & Topciu, R. A. (2004). Covert and overt expressions of self-criticism and perfectionism and their relation to dep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61-72.
- Rowan, J. (1990). *Subpersonalities: The people inside*

- us. London: Routledge.
- Shahar, G., Blatt, S. J., Zuroff, D. C., Kupermine, G. P., & Leadbeater, B. J. (2004).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elf-criticism(but not dependency) among early adolescent girls(but not boy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1), 85-103.
- Shaw, B. F., Vallis, T. M., & McCabe, S. B. (1985). The assessment of the severity and symptom patterns in depression. In E. E. .Beckham & W. R. Leber(Eds.), *Handbook of depression, I.* (pp. 372-407). Illinois, Homewood: Dorsey Press.
- Stone, H., & Stone, S. (1989). *Embracing our selves.* Novato, CA: New World Library.
- Stone, H., & Stone, S. (1993). *Embracing your inner critic: Turning self-criticism into a creative asset.* California: Delos, Inc.

원고접수일 : 2005. 5. 30

게재결정일 : 2005. 10. 1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depressive persons by Multiphasic Persona Inventory

Soon-Whoan Park

Daenam Hospital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survey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ve persons by Multiphasic Persona Inventory. The Persona scores of the high($n=54$) and the low($n=224$) depressive students among 366 students were compared in Study 1. The Persona scores of the 42(male 21, female 21) depressives and 44(male 22, female 22) normals were compared in Study 2. The common results both of Study 1 and 2 were that the scores of the Critic and the Vulnerable Child Persona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score of the Playful Child was significantly lower in depressive groups than control groups. Among the subfactors, the scores of 'vulnerable-sensitiveness', 'striving for the strength', 'disgusting the mistakes', and 'defensing the face'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score of 'the liveliness' was significantly lower in depressives.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n study 1 were that the Critic had the strongest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the highest variance for explaining the depression.

Keywords : persona, depression, multiphasic persona, personality characteristics